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9. Vol. 9 No. 1, pp. 63~84

## 영재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수준

이 수 남(안양대학교)

오 연 주(염지유치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직 유치원 교사가 갖고있는 영재아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현재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영재교육 방향 설정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코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울과 안양 지역에 위치한 임의로 선정된 30개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121명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낮아 무작위로 40명을 재선정하여 2차 설문과 아울러 면담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설문은 교사들의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 영재교육의 실태, 유치원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 교육 개선 방향을 묻는 1부와 학습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유아의 수를 기입하는 2부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유치원 교사의 영재아 인식도는 낮았고, 현 유치원의 영재교육 실태는 매우 저조하였지만, 유치원 교사의 영재아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영재아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실시한 2차 설문과 면담 후 인식도는 많이 높아졌다 (면담 전 7.4%, 면담 후 40%).

결론적으로 현직 교사의 영재에 대한 낮은 인식도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경험의 부족, 무관심, 교육 방법에 대한 인지부족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므로,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재성,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영재 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겠다. 영재의 판별 및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고있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은 바로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적절한 교육의 제공에 직결되므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빈약한 영재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서 론

오늘날 영재아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에 대처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형편이다.

인재의 양성은 장시간을 요하므로 능력이나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육방침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최일선 과제이다. 유아교육 연구자들은 유아기에 아동들의 학습태도와 유형이 거의 형성, 고정되므로 유아기에 최대한 또는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유아기의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있다(조석희, 한순미, 1986 ; 재인용).

유아기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교육 담당자인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사회적 통념에 의거 유아기에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하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강조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재아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저마다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영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영재아를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교육역할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가 영재아의 특성, 영재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영재아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몰이해나 선입견 또는 무관심에 의해 영재아의 재능이 계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직 유치원 교사가 갖고있는 영재에 대한 인식 및 현 유치원의 영재교육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나아가 앞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코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오늘날 영재교육은 한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킴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재는 조기에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교사와 학부모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영재아가 스스로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재아 판별의 문제이다. 영재아들은 그들의 연령에 비해 고도로 전문화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소질과 능력, 창의성, 집착력 등을 보이며, 유치원 과정에서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판별해 낼 수 있다는 점(배순호, 1979)은 영재를 조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별해야함의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영재아 판별을 하나의 자료에 근거하여 일회적으로 하지 않고 복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다단계에 걸쳐 판별하고 있다. 이를 세단계로 나누어보면, 판별 1단계에서는 담임교사나 과거 담당교사의 추천을 근거로 하며, 판별 2단계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각종 표준화검사를 통한 정보수집을, 3단계에서는 학생의 실연, 실험, 포트폴리오 등을 근거로 한다.

판별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문제에 접근해 볼 때, 교사는 1단계에서 영재아를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추천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사는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정보수집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정보수집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영재성이 간과되는 일은 없어야 되며, 정보분석의 오류로 인해 영재가 갖고있는 재능의 발휘 기회가 무시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과, 현직 교사들의 능력 배양은 물론 무엇보다 영재아에 대한 사회 교육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어릴 때부터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적인 영향으로 취학전 교육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 과정에서 높은 반이나, 몇 단계 높은 수준의 학교로 곧바로 속진 시켜 다양한 재능에 걸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체능분야의 '타고난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여 천재 교육을 해야한다'는 김정일의 주장에 따라 1960년부터 기본학제에서 11년제의 음악학원과 무용학원 외국어학교 그리고 조형예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영재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미 유치원이나 인민학교의 학습활동 중에 선천적인 소질을 보이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김현수, 1995).

미국의 경우에도 특수학교를 설치하여 조기에 재능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재능의 정도에 따라 월반 및 조기졸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능력별로 그룹화하여 진도의 가속화와 내용의 풍부화를 기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 각 교육구에는 대부분의 영재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대학들도 영재교육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지도담당교사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린 영재의 창의력개발에 관심을 두고 5-16세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시험이 매년 연구소나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강경희, 1996).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6년 과학고등학교 설립 이후 고등학교 수준의 영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나 조기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및 시행은 미진한 현실이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관찰에 의한 지명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손경재(1993)는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도를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재성 인식 측면에서도 학습특성에 비해 창의적 특성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재교육의 개론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학급 현장에서 영재아에 대한 판별이나 적절한 교육에 대한 준비, 계획 등이 미진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영재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영역별 특수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손경재, 1993).

강경희(1996)는 영재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별에 의한 영재선정과 이들의 재능을 신장시켜 줄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확립과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복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영재교육은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은 영재교육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식된 만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과 같은 현실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사들보다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와 학부모 두 집단 모두 영재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실시시기에 있어서도 저학년 혹은 유치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학전 영재의 조기교육을 위한 공식기관은 전무한 형편이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영재교육연구소와 기독교문화센터 영재교실 정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입학을 영재교육의 방편으로 개방을 하였다. 그러나 조기 입학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적응이 문제되는 바 조기입학 보다는 영재유아에게 맞는 심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그러나 유아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심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화프로그램의 부분적 혜택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일지라도 영재아에 대한 방관적 태도는 이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나타난 영재성 뿐 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영재성까지 계발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위해 교육제도, 교육과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교사교육 등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기에 영재아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관심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지도 및 현 유치원의 영재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될 사항을 미리 조사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영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지도 및 현 유치원 영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안양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중 임의로 유치원 35곳을 선정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으며, 140명 중 성의 없게 응답한 교사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12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문에 응한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48명, 대졸 57명, 대학원 재학중 7명, 대학원졸 9명이었다. 경력은 1년 미만인 22명, 1-2년이 33명, 3-4년이 24명, 5-6년이 17명, 10년 이상이 13명이었다.

## 2. 연구절차

선정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저조한 인식도를 예상하여 2차 설문을 준비하였다. 2차 설문은 영재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차 설문지는 1999년 4월 20일 35개 유치원을 방문하여 설문에 자세하고 빠짐없이 답해 줄 것을 의뢰했다. 배부된 140부의 설문 중 무응답 5명, 충실치 못한 응답 14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21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했다. 1차 설문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가 7%로 나타나 손경재(1993)의 연구결과인 초등학교 교사의 영재아 인식도 30%에 비해 훨씬 낮았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이 갖고 있는 영재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제1차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교사 121명 중 무작위로 40명을 선정하여 99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교사들에게 영재아의 정의, Terman의 영재아의 특성 16가지, 영재 판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5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 설문에 응답해줄 것을 의뢰했으며, 응답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유아교육의 영재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의 영재아 인식도가 1차 설문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영재아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있을 것 같아 6월2일과 3일 이틀간에 2차 설문에서 영재아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 중 3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여 영재아에 대한 변화된 인식내용을 검토해보았다.

### 3. 측정도구

사용된 설문은 2가지 종류로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가. 1차 설문지

1차 설문지는 손경재(1993)의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의 초등학교 교사용 질문지를 유치원 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에서는 다음의 4개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교사들의 영재에 대한 인식도 및 영재의 존재여부

둘째, 영재교육의 실태: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법 인지도,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보급현황

셋째, 유치원 교육이 영재에게 미치는 영향: 영재와 일반 아동을 같은 학급에 교육할 경우 영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넷째,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2부에서는 영재의 특성을 학습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영재아가 보이는 뚜렷한 특성 또는 뚜렷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 나. 2차 구조화된 설문지

1차 설문에 응한 교사 중 일부에게 영재아의 정의, Terman의 16가지 영재 특성 및 영재아 판별에 관한 설명을 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주고 응답을 의뢰했다.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교사가 지도하는 어린이 중에 영재아라고 보여지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영재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린이의 부모와 상담하여 보았습니까?
- 3) 영재아에 대한 차별화된 지도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 4) 영재아를 위한 적절한 교육시기와 교육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5) 영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 IV. 설문 및 면담 결과

### 1. 1차 설문 결과

가. 유치원 교사들이 영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학급에 영재아가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전체의 7%, 없다고 대답한 교사는 79%로 인식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영재아 인식 정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도 30.3% (손경재, 1993)에 비해 인식도가 낮은 것은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무관심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교사가 영재아의 일차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교사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로 여겨진다.

<표 1> 교사의 영재에 대한 인식도

응답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인원수 (백분율 %)	9 (7)	95 (79)	11 (9)	6 (5)	121 (100)

<표 2> 교사가 인식한 영재의 수

빈도(%)

영재아 인식 교사 수	학급에 있는 영재아 수		
	1명	2명	5명
9	5(56)	3(33)	1(11)

영재아가 있다고 대답한 교사 중 영재아의 수에 대한 응답은 <표 2>에서와 같이 교사 9명 중 56%(5명)가 1명, 33%(3명)가 2명, 11%(1명)가 5명이 있다고 답했다.

나.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특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표 3>과 같이 전체 교사의 67%가 '필요하다', 12%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여 비록 자신의 학급에는 영재아가 없다고 답한 교사도 영재교육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교사의 영재교육 필요성 인식도

응답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인원수 (백분율 %)	81 (67)	14 (12)	20 (16)	6 (5)	121 (100)

다.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나 강의를 받아본 경험 유무의 응답에서는 <표 4>와 같이 84%의 교사가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표 3>과 같이 많은 교사가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아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되는 지에 대한 교사의 교육이 극히 부진한 문제점을 보였다.

<표 4> 영재교육 관련 연수 또는 강의의 경험 유무

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인원수 (백분율 %)	14 (12)	102 (84)	5 (4)	121 (100)

라. 영재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현황은 <표 5>와 같이 보급되지 않은 유치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5> 영재아 교육 프로그램 보급 실태

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인원수 (백분율 %)	18 (15)	98 (80)	6 (5)	121 (100)

마. 유치원에서 영재아와 일반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 영재아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력을 기른다'가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영재아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통념의 영향으로 일반 아동과 같이 어울려 지냄으로써 사회성이 발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도력을 기른다'는 응답은 영재아가 일반아에 비해 단체 활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유치원교육이 영재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응답 내용	인원수 (백분율 %)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64 (53)
지도력을 기른다	39 (32)
정서적 발달을 돕는다	9 (7)
기타 의견	3 (3)
무응답	6 (5)
전 체	121 (100)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44%의 교사가 '학습에 대한 동기, 흥미, 호기심 상실'을, 27%가 '친구에게서 고립'을 15%가 '학문적 자아개념 저조'를 들었다.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실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일반 아동을 위주로 되어있다는 사실과 학습 내용이 영재아에게는 평이한 내용이어서 영재아의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있음을 나타내며, '친구에게서의 고립'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영향과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아와 같이 학습하는 영재아의 성취동기를 진작시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표 7> 유치원교육이 영재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응답 내용	인원수 (백분율 %)
학습에 대한 동기, 흥미, 호기심 상실	53 (44)
친구들에게서 고립	33 (27)
학문적 자아개념 저조	18 (15)
소속감 상실	5 (4)
심리적 불안정	3 (3)
무응답	9 (7)
전 체	121 (100)

바. 유치원에서 영재아가 일반아동과 같이 교육받는 것이 영재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시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학급 전체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습에서 영재아의 선도적 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반대'가 27%, '위화감 조성'이 22%로 나타났다.

<표 8> 영재아를 일반아동과 함께 학습시키는 이유

응답 내용	인원수 (백분율 %)
학급전체 학습동기 유발	53 (44)
학부모 반대	33 (27)
위화감 조성	26 (22)
관행이므로	5 (4)
기회 균등	3 (3)
무응답	1 (1)
전 체	121 (100)

사. 영재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표 9>와 같이 '특수 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개발'이 30%, '아동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 개선'이 28%, '학급당 아동 수의 축소'가 18%로 나타나 영재를 위한 특수 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 문제점임을 알 수 있으며, '학생수 축소', '특수학급 설치', '교육 전념 시간 할애' 등에 관한 응답은 영재아 교육이 현 유치원 교육 내용보다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표 9>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응답 내용	인원수 (백분율 %)
특수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개발	37 (30)
아동 특성 고려한 학습지도 개선	34 (28)
개별지도 가능토록 학급당 학생수 축소	22 (18)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설치	12 (10)
교사의 교육 전념 시간 할애	11 (9)
기타 의견	6 (5)
전 체	121 (100)

<표 10> 교사가 보는 영재의 특성

구 분	응답 내용	인원수 (백분율 %)
학습 특성	지식이 다양하다.	8 (7)
	책을 많이 읽는다.	7 (6)
계		15 (13)
창의적 특성	창의력이 있다.	33 (27)
	질문이 많다.	17 (14)
	언어구사력이 뛰어나다.	10 (8)
	논리적 문제해결력이 있다.	10 (8)
	표현력이 풍부하다.	5 (4)
	상상력이 풍부하다.	1 (1)
계		76 (63)
정의적 특성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다.	11 (9)
	집중력이 있다.	10 (8)
	산만하다.	6 (5)
	독립적이다.	3 (2)
계		30 (24)
전 체		121 (100)

아. 영재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크게 '학습 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 교사의 63%가 '창의적 특성'을 들어 영재아의 정의를 창의성이 높은 아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24%가 '정의적 특성'을, 나머지 13%는 '학습특성'을 들었다. 창의적 특성 항목에서는 '창의력이 있다', '질문이 많다' 등을 들었으며, 정의적 특성 항목에서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다', '집중력이 있다'를 학습특성에서는 '지식이 다양하다', '책을 많이 읽는다'를 들었다.

이상의 설문 결과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손경재, 1993)를 종합 비교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경력이 적을수록 영재아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는 반응을 많이 나타냈으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많은 교사가 (67%)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영재아 인식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0.3%인데 반해 유치원 교사의 경우 7%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재교육에 관련된 교육은 받아본 경험이 있는 유치원 교사가 12%에 불과하여 영재교육에 있어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비해 대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부재로 인해 영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관심하여 영재아 인식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영재교육관련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겠다.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현황도 매우 열악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보급률이 7%, 유치원이 15%에 불과하였다.

일반 아동과 영재아의 유치원에서의 혼합반 운영이 영재아에 대한 긍정적 영향 중 사회성 발달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있으며 (53%),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학습 의욕 상실 (44%)을 들었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의 경우와 일치한다. '부모가 유아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데 대한 이유는 자녀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연구결과 (조석희, 한순미: 1986)는 부정적인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석희, 한순미(1986)에 의하면 영재아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자녀와 지적 수준이 비슷한 여러지역의 아동들을 모아 특별 프로그램이나 유치원을 설치하여 지도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와 혼합반 운영의 이유로는 영재아가 다른 아동의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44%)이 가장높게 나타났다. 영재아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는 특수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개발 (30%)과 아동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 개선(28%)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의 특성으로 창의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63%), 그 외에도 다양한 영재성의 특성을 들었다.

## 2. 면담 및 2차 설문 결과

설문에 응한 교사 121명 중 임의로 4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 실시 20일 후 영재의 정의, 영재의 특성, 영재의 판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구조적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가. 지도하고있는 어린이 중 영재아로 보이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1차의 설문지에 대한 답을 할 때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설문 대상 40명의 교사 40명 중 영재를 경험해본 교사의 수는 16명(40%)으로 1차 설문시 영재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7%에 비해 유의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 $p < 0.025$ ). 이와 같은 결과는 1차 설문에서 영재교육 관련 연수나 강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험이 있는 교사가 121명 중 12%(14명)에 불과한 현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교사들이 영재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하겠다.

<표 11> 면담 후 교사가 보는 영재의 특성

구 분	응 답 내 용	인원수 (백분율 %)
학습 특성	지식이 다양하다.	2 (5)
	계	2 (5)
창의적 특성	창의력이 있다.	5 (13)
	질문이 많다.	6 (15)
	언어구사력이 뛰어나다.	7 (17)
	계	18 (45)
정의적 특성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다.	5 (13)
	과제 집착력이 높다.	10 (25)
	산만하다.	2 (5)
	사회성이 부족하다.	3 (7)
	계	20 (50)
	전 체	121 (100)

영재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음 <표 11>과 같이 응답하였다. 전체 교사의 50%가 '정의적 특성'을, 45%가 '창의적 특성'을 들었으며, 이는 1차의 설문조사에서의 응답 ('정의적 특성' 13%, '창의적 특성' 63%)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1차 설문에서 영재아의 뚜렷한 특성으로 여기지 않던 정의적 특성의 '과제 집착력이 높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과제 집착력이 높은 아이를 새로이 영재아로 인식했음은 2차 설문 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한 의견과 잘 일치한다. 1차 설문과 비교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항목도 포함되었다.

나. 영재아가 있다고 답한 교사 중 영재아 교육 문제를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16명중 8명만이 부모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가 영특하다는 점을 부모와 함께 공감하며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 경우가 6건, 부모가 교사에게 아이가 지적으로 특별하다고 교사에 지도를 부탁한 것이 2건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재아의 지도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서로 협동해서 지도해 나갈 때 유아의 영재성 계발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에 비해, 교사와 부모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염려스러운 점이다.

다. 영재아를 경험한 교사나 경험하지 않은 교사 모두 영재아 교육의 적절한 교육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출생 직후부터 6세까지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이 3-4세가 영재교육을 시작해야할 적기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영재아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일치한다. 전문가에 의뢰해 영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사가 7명,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특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한다는 교사가 5명, 영어VTR을 통한 지도를 1명이 제안했을 뿐 대부분은 별다른 교육방법을 알고 있지 못했다. 대부분의 교사가 영재아 지도에 있어 유치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영재아를 지도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르고있는 것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을 입증해 준다.

라. 영재아 지도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면 안돼”라는 말을 적게 하겠다.

- 그룹토의 시 친구들의 생각을 선도하여 이끌 수 있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어떤 한가지 영역에 치우치는 것은 적절히 중재하겠다.
- 다른 아이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해심과 사회성이 부족하므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
- 다른 아이들과 별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으나 그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겠다.
- 수용적이고 허용적 자세로 아이의 지적 호기심에 대응하겠다.
- 지적인 발달보다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도를 비중 있게 실시하겠다.
- 새로운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 학습에 흥미를 지속하도록 지도하겠다.
- 알고 있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식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이상의 영재아 지도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영재아 특성에 대한 물이해에서 오는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자세로부터 이해를 통한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방향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실현 여부를 떠나 짧은 면담이었지만 영재아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향상과 적절한 지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유치원 교사들에게 영재아 교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매우 미진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마.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결과한 결과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유치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전문영재교육기관을 부모에게 안내해주는 것도 영재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40명의 유치원교사 중 전문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아 6명의 교사가 '스찌다 교육원'을, 3명의 교사가 'CBS 영재교육기관'을 전문 영재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을 뿐 나머지 31명의 교사들은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단, '스찌다교육원'을 영재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심층 면담 후 교사의 반응

2차 설문에서 영재아가 학급에 있다고 응답한 교사 중 3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심층 면담에서 보인 교사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 반에 있는 아라는 책읽기를 좋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보지마, 나 책 읽고 있어”, “저기 가서 놀아” 하는 등 친구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배타적이고 교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금방 무시하고 다시 책읽기를 하곤 해서 기분이 나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영재의 특성인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아라에게 화가 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아라가 다른 아이에게 간단한 대답과 짧은 질문만을 하지만 아이들이 아라를 배척하지 않고 아라 주위에서 많은 아이들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라는 책읽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아이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A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우리 반에 상문이라는 아이는 정말로 이상해요. 모두 모이는 시간에 혼자서 퍼즐 맞추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야”라고 교사가 얘기해도 상문이는 “더 보고 싶어요”하며 계속해서 책을 읽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강제로 책을 덮고 정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사에게 그 아이의 그러한 행동은 영재의 특성이니 이해해보도록 교사에게 설명한 후 교사는 행동에 변화를 보였고 상문이는 산만하다거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었어요. 교사가 모두다 바깥놀이를 나가야 하는데 상문이 혼자서 실내에서 책을 보겠다고 우기자 교사는 “그래 그럼 책을 바깥놀이에 가지고 나가서 보자”라고 했고, 이런 교사의 제안에 상문이가 따랐어요. 교사가 계속해서 책을 못 보게 하거나 혼자 남아있겠다는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이를 야단치거나 문제시하지 않고 아이를 이해함으로써 아이와 교사 모두 만족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B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처음에는 수영이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놀이 시간에 ‘퀴리부인이 뭐 만드지 아세요?’라고 묻는 등 엉뚱한 질문을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 해 줄게’라며 제재를 했어요. 공놀이 방에서도 공을 계속해서 672개까지 세는 거예요. 그만 치우라

고 해도요.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를 칭찬하면 수영이는 무척 괴로웠나봐요. 어느 날 진희라는 아이를 대답을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진희 엄마가 진희를 데리러 유치원에 오셨을 때였어요. 수영이가 갑자기 '우산이 뭘지 아세요?'라고 진희 엄마께 묻는 거예요. 모두 어안이 병병해 있는데, "umbrella예요. umbrella..."라며 외치는 거예요. 수영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큰소리로 외치기에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야단쳤어요. 그런데 수영이가 영재아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간 제가 수영이한테 잘못했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수영이의 질문에 '그래 선생님도 잘 모르겠으니 같이 더 생각해 볼까?', '정답을 같이 찾아볼까?'라며 같이 동감해 보려고 노력해요. 과제의 리더를 맡겨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주니까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줄도 알게 되고 친구들과 서먹서먹하던 면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아이들은 토마토를 모두 과일이라고 하는데 수영이만 채소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이상한 아이라고 소리치고 수영이는 계속 혼자서 채소인 데라고 하곤 했거든요.(C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이상의 심층면담에서의 교사들의 반응을 통해 영재에 대한 인식을 한 후의 교사의 교육 방법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영재아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지도하려는 노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재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재아의 특성이 오히려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만 여겨져 교사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됨이 안타깝다.

## V. 결론 및 제언

설문의 분석 결과 현직 유치원 교사의 영재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재아를 위한 특수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의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영재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후 실시한 면담에서는 영재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면담 전 7%에서 면담 후 40%).

이는 인식도가 낮았던 이유가 현직 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 또는 무관심에서 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직간접적인 경험의 부족과 영재에 대한 교사교육의 미진이므로, 우선적으로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재성,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영재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겠다. 영재의 판별 및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고있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은 바로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적절한 교육의 제공에 직결되므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빈약한 영재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재아가 일반 아동과 함께 수업 시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아동과 어울린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가는 불분명하다. 교사가 보는 영재아의 사회성 부족이란 친구들과의 대화의 부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대화 부재의 원인보다는 외견적인 현상만을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대화의 부재 원인이 사고력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으며,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단순히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는 사회성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중재가 필요하다. 영재아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업을 방해한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영재아를 지도하던 교사들이 영재아의 특성에 대해 인식하고 난 후 영재아를 이해하고, 영재아에게 학급과제해결 리더의 역할을 제공해 주거나, 영재아가 가진 풍부한 지식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재아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영재아가 소외됨이 없이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될 수 있었다는 사례는 영재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영재아는 아는 것이 많아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사가 꾸짖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재아와 같이 학습하는 것이 보통아이들의 학습동기유발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영재아 때문에 일반아동이 생각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영재아와 일반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는 많은 지식을 갖추어야하며 영재아의 판별과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영재아 및 일반아 모두에게 적당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 교사의 연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 연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영재 교육의 필요성 : 영재아란 일반아동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이므로 이들의 능력에 맞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영재의 정의 :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을 가진 아이이다.

- ③ 영재의 심리적 행동 특성 : 영재아들은 자극과 도전을 받고 싶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영재아는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며 우연히 접하게 된 현상들을 탐색하고, 오랫동안 집중한다. 해결능력과 독서 능력이 뛰어나며 혼자 놀이를 즐긴다.
- ④ 영재 판별의 구체적인 방법
  - ㉓ 교사의 관찰 및 추천 방법 - 영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평정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하는 방법
  - ㉔ 검사도구 사용 방법 - 지능검사, 성취도 검사, 창의성 검사, 표준화 심리 검사 등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 ㉕ 개방적 교육과정 - 학습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학습 활동 고양
  - ㉖ 자율적 선택 중시 - 학습자의 기호, 욕구, 능력 등에 나타나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한다.
- ⑤ 각 분야의 재능 개발 과정 : 언어·수·과학·음악·시각사고력 향상과 관련된 언어 활동 문제 해결력과 수·과학 활동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지도할 음악, 미술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⑥ 영재 교육 과정
  - ㉗ 주제 관련 학습 - 학습 활동은 사고와 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풍부한 동기 유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㉘ 과정 중심 교육 과정 -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 ㉙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 -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6),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성호(1981), 영재교육방법에 대한 일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1990), 과학영재아의 프로그램개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휘(1995), 영재교사 양성과 연수체계, 영재교육연구, 제 5권 1호
- 박성익(1995),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 81-112
- 배호순(1979), 영재판별에 대한 일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손경재(1993),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섭(1997), 유치원에서의 영재교육의 실재, 영재교육연구, 제 7권 2호, 163-173
- 전경원(1992),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서원
- 정연태(1993), KAGC 프로그램검증.
- 정은교, 정세교, 정승교저.(1993), 영재아에게 도움을: 정연태교수 유고집, 까치
- 조석희, 한순미(1986),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 조석희(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 연구 제 5권, 1호, 1-40
- 조석희 외 4인(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재, 한국교육개발원
- 조숙영(1994), 유아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teaching gifted children and suggest elements(or factors) to be considered in setting up goals thereof by analyzing incumbent teacher's awareness. 121 teachers were arbitrarily selected from 30 different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Anyang, and they were interviewed with two part's questionnaires (or opinions) of improving current practice.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questions about teacher's awareness of gifted children, actual state of teaching gifted children, effects of teaching in kindergarten for gifted children, and desired direction for teaching improvement.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naire provided interpretation of precociousness by study habit, creativity and definitive properties and asked the number of children qualified in their classes. Since the results of the first interview as to awareness of gifted children were dismal, 40 teachers were thereafter randomly selected again, and the second interview was warranted.

The results alarmingly revealed that program of teaching gifted children were barely existing even though the teacher's awareness for the needs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precocious as well of study materials and programs thereof was high. In addition, the teacher's familiarity of gifted children was surprisingly low. At the second interview whereby gifted children was explained, the teacher's awareness of gifted children was dramatically improved to 40% in comparing with 7.4% at the first interview without explanation of gifted children.

Teacher's awareness of gifted children was low because of lacking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of having gifted children and special programs thereof in their classes as well as teacher's nonchalance. Therefore not only adequate training and education of teachers, but also cultivation of qualified teachers for special programs for the precocious are obligatory. Training of incumbent teachers and determination of gifted children are prerequisite for timely discovery of gifted children and adequate education for them.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diffusion are also crucial.